



미술관에서 정해년 복 비는 '세화찍기'
박물관에서 제기차기·널뛰기 전통놀이

“애들아 우리 윷놀이 하러 갈까”

설 연휴 문화·체험 행사

오붓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설 연휴가 며칠 남지 않았다. 모처럼 만에 찾아오는 휴식이지만 방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일. 그렇다고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 문화활동을 하기에 부담스럽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공짜로 즐기고 추억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전통행사가 많다.



올 설에는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사진은 광주박물관에서 열린 떡메치기 행사.

▲미술관=광주 시립미술관은 설 연휴를 앞둔 15일 오후 2~4시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미술관에서 세화(歲畵) 찍기' 행사를 갖는다. 세화는 새해 복을 빌고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그림이나 문자다. 서화가 조정숙씨의 지도로 세화를 직접 찍어보고 작품을 가져갈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062-525-0968.

정해년 돼지띠 해를 맞아 돼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돼지, 꿈, 꾸다'전을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 18일 오후 2시.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를 비롯 한국화와 관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해 새해의 소망을 담은 돼지를 테마로 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360-1630.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도 오는 25일까지 '황금돼지'전을 연다. 문의 062-222-3574.

▲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과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전통놀이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박물관은 설 연휴 기간인 17~19일까지 할아버지와 손자를 동반한 가족과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에게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내내 박물관 전시실 앞에서는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굴렁쇠 굴리기,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도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해 '물랑'(17일 오후 2시), '하늘의 움직이는 성'(18일 오후 2시) 등 애니메이션도 상영된다. 입장료는 어른 1천원, 어린이 500원. 문의 062-570-7010.

해양유물전시관은 17~19일까지 '한석봉 어머니 떡썰기·글쓰기 대화'와 전통 민속놀이마당 행사를 갖는다.

18일 오후 2시부터 유물전시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한석봉...' 행사는 부모와 자녀가 2인1조로 참가.

부모가 떡을 썰고 자녀는 글을 쓰는 대화. 제한 시간 안에 떡을 곱게 썰고 글을 잘 쓴 가족을 선정, 상품을 준다.

한복을 입은 참가 가족에게 가산점을 주고, 대화 참여가족에게는 전시관 1년 무료 입장권을 선물한다. 오는 16일까지 선착순 30가족을 모집한다.

이밖에 유물전시관 해변광장에서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 등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마당 행사도 열린다. 입장료는 어른 600원, 어린이 300원. 문의 061-270-203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독특한 작업·소재로 승부하는 미술 3인방



'나무젓가락 화가'로 불리는 오윤석씨



신문지를 활용해 독특한 작업을 하는 박은수씨

붓 대신 나무젓가락으로, 신문지를 찰흙 처럼...

톡톡 튀어야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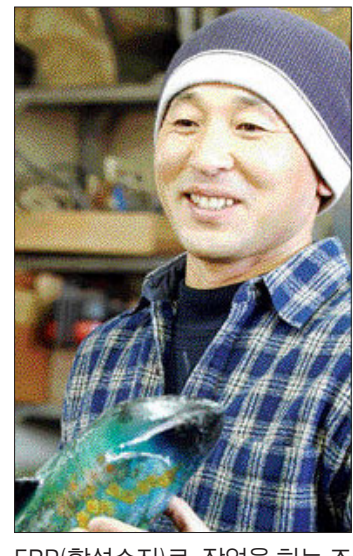
어렵고 힘든 고유의 작업영역에서 벗어나 영상이나 설치 등 현대미술로 전향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영역에서 독특한 작업 소재를 개발, 독특하게 작업세계를 펼치고 있는 개성 넘치는 작가들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화가 오윤석씨와 조각가 김숙빈, 서양화가 박은수씨는 자신들의 분야에서 선명한 걸러를 보여주는 작가들로 통한다.

붓 대신 자갈면을 먹는 나무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한국화가 오윤석씨는 '나무젓가락 화가'로 불린다.

오씨의 기법은 나무젓가락 끝에 먹물을 묻혀 화폭에 수백, 수천번 점을 찍어 그림을 완성하는 점묘법이다.

오씨는 5년전 TV를 보던 중 누군가 나무젓가락으로 붓글씨를 쓰는 것을 보게됐고, 흥미를 느껴 수년 동안 '젓가락 그림'에만 매달렸다.

그는 독특한(?) 붓으로 그린 작품을 검증받기 위해 5년 동안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도전한 끝에 지난해 제25회 대회에서 구상 부문



FRP(합성수지)로 작업을 하는 조각가 김숙빈씨

특색을 차지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조각가 김숙빈씨는 재료를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 작가다. 전통 조각은 돌, 철, 구리 등을 재료로 작업하는 게 보통이지만, 김씨는 FRP(합성수지) 재료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진흙으로 작품의 형태를 만든 뒤 석고로 입혀 분을 떠내고 다시

형틀에 합성수지 소재를 부어서 작품을 제작한다. 김씨의 작품은 워낙 제작 과정이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작가들이 임무를 내지 못하는 기피작업이다.

솔한 시행착오를 거친 그는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전 등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서양화가 박은수씨는 일상과 역사의 기록인 신문지를 찰흙처럼 잘게 부순 뒤 특별제작한 이교로 캔버스에 부착하는 부조 기법으로 작업한다. 그는 7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에서 캔버스에 붙여놓은 소재가 떨어져 나가거나, 캔버스가 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과대학에서 화학 전공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접착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지난해 광주시립미술대전에서 '군산-박제현 연대인'으로 대상을 차지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리춤의 향연'

남도소리 상설무대 14일 광주문화회관



'이매방류 입춤'을 추는 류영수씨.

광주문화회관이 마련한 남도소리 상설무대 '우리춤의 향연'이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류영수씨가 이끄는 류무용단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이매방류 입춤, 진주교방 궁거리춤, 김수악류 살풀이춤, 소고춤 등 전통 무용을 선보인다.

또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창작 무용 '사랑가'등도 무대에 올린다. 류무용단원 이외에 황규선·김덕숙·이준철·박

세희씨 등이 찬조출연한다. 문의 062-510-92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족음악회 22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시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위한 가족음악회가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금남로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모임 회원들이 꾸미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모임 회원인 서민정씨가 해설을 맡으

며 역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백호, 메조 소프라노 신은정, 소프라노 유희민씨가 '내 마음의 강물' '님이 오시는지' 등 가곡과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투란도투'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춘희' 중 '축배의 노래' 등을 들려준다.

특히 차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열(플루트)씨와 박병조(바이올린)씨가 주악의 '베니스의 시유제'와

비발디의 '사계'중 '봄'을 통해 실력을 보여준다.

광주시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현재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년에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정기공연 8회, 수시공연 4회 등 총 12회 공연의 입장권 2매와 '해설이 있는 화요음악회' 가족음악회 초대권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hong, Jeongwoo, Jungkaebin, Cheonhwa, and others, listing properties and contact information.